

국토이슈리포트

제 30호

2020년 12월 29일

| 발행처 | 국토연구원 www.krihs.re.kr | 발행인 | 강현수 | 주 소 | 세종특별자치시 대책연구원로 5

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의 기록 (2) - 2030세대의 소득·소비·부채 변화 -

요약

■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지원정책, 그리고 한국의 2030세대

-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내·외 산업활동 등에 다양한 악영향을 초래, 장기화로 인한 산업활동 정체와 위축된 소비 현상은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화
-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으로 고용시장의 회복 지연이 발생했고,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5월 '긴급재난지원금' 지급
- 2020년 1분기와 2분기를 코로나19 대확산기와 경제회복 촉진기로 구분하고 65세 미만의 '전체 경제활동인구'와 '2030세대'의 소득, 소비, 부채를 지역별로 비교

■ 2030세대의 높은 소비와 부채

- 코로나19 대확산기(2020년 1분기)에서 경제회복 촉진기(2020년 2분기)로 변화하는 동안, '전체 경제활동인구'의 소득, 소비 및 부채는 각각 2.9%, 9.3%, 1.2%가량 상승한 데 반해, '2030세대'는 각각 4.0%, 10.6%, 5.9%가 상승
- 경제활동인구 전반에서 정부 재난지원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짐작되는 한편, '2030세대'의 부채는 여전히 높음

■ 코로나19 초기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'2030세대'의 부담이 증가

- 2019년 대비 2020년 대확산기에는 코로나19 초기 대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었지만, '2030세대'의 소비활동은 크게 위축되지 않음
- 코로나19 초기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'2030세대'에서 나타난 여전히 높은 신용대출은 위축된 소비와 맞물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됨
-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영향도 '2030세대'의 부채 상승에 주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

■ 시사점

- 경제회복 촉진정책을 통해 시군구 전반에서 소득과 소비의 회복이 확인됐지만, '2030세대'의 경우, 지역별 비율이 상이하여 어느 정도 소득과 회복으로 직결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
-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역경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

허다혜 국토데이터랩 인턴
배서광 국토데이터랩 인턴
장요한 국토데이터랩 팀장
박서현 국토데이터랩 연구원

1

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지원정책, 그리고 2030세대

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의 시작과 한국의 경제적 기반형성 세대의 영향

2019년 12월 31일, 중국 우한(Wuhan)에서 발병징후를 보인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한 빠른 전염으로 발발 2개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고,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(WHO)는 최악의 전염병인 세계 대공황(Pandemic)을 선언

- 코로나19의 확산은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시는 기존의 대면 사회활동에 다양한 장애를 초래하며 대면 기반의 모든 서비스와 국내·외 산업활동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
- 전통적인 제조업, 무역업 등의 제한된 국가 간 이동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손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 확산
-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산업활동의 정체와 대면 활동 감소로 위축된 소비 현상은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화

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고용시장의 회복 지연

-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간 이동과 사회활동 제약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인 여행·레저 산업 등은 젊은 노동력의 주 수요산업군
- 통계청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, 한국의 사회초년생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대비 2019년에 약 0.2% 감소했지만 동 연령대의 실업자 수는 약 10.9% 증가
- 코로나19 이후 20대와 30대의 분기별 평균 취업자 수는 2019년 463만 8천 명에서, 2020년 449만 6천 명으로 -3.1%가 감소하여, +0.4% 증가한 40세 이상의 평균 취업자 수 변화와는 대조적¹⁾

코로나19의 소득·소비·부채 영향을 연령대별 특성과 분기별 특성으로 구별하여 분석

자택 주소지 기준으로 취합된 연령대별 경제활동 데이터를 '2030세대'와 '전체 경제활동인구'(65세 미만)로 구분

- 한국가계신용데이터(Korea Credit Bureau: KCB)의 전국단위 소득과 부채,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9년 1분기와 2020년 2분기 사이의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영향을 분석*
- * 각 데이터는 분기별 마지막 월의 평균으로 집계된 형태로 구성(예, 1분기와 2분기: 각각 3월과 6월의 월평균)
- (2030세대의 경제활동 데이터) 전국 20~39세까지 10세 단위로 취합된 데이터로, 100m 공간 단위로 집계된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 전반 정보를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후 활용
- (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데이터) 같은 방식으로 집계된, 20~65세 미만의 경제활동 전반의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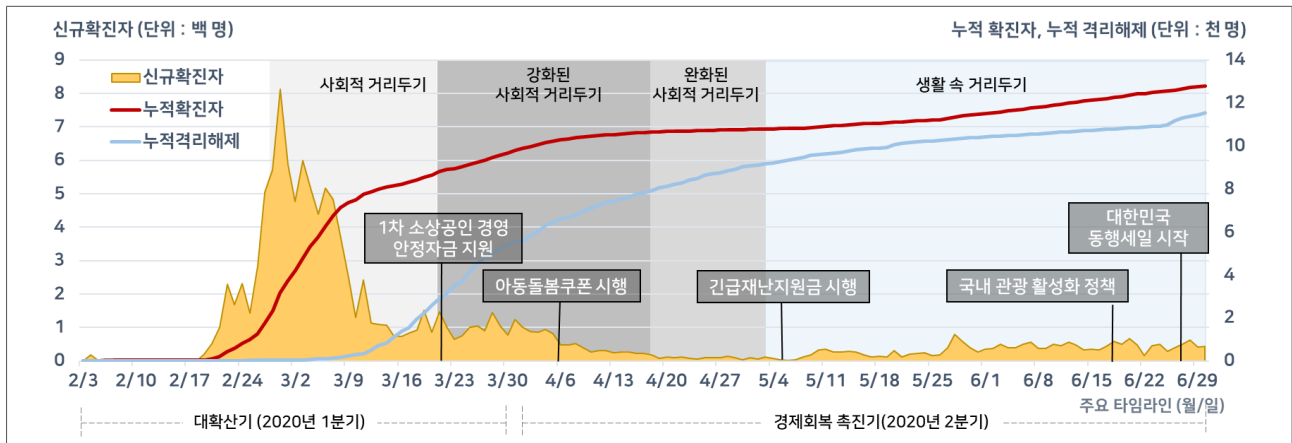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의 타임라인에 따라, **대확산기**(2020년 1분기)와 **경제회복 촉진기**(2020년 2분기)를 구별

- (대확산기: 2020년 1분기) 대구·경북 지역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, 정부의 '사회적거리두기' 발표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증가와 대면 활동의 감소
- (경제회복 촉진기: 2020년 2분기)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를 유지하면서 계속되는 '사회적 거리두기'와 함께,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의 노력으로 '아동돌봄쿠폰'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'긴급재난지원금' 지원²⁾, 관광객 급감으로 타격받은 관광지역 지원을 위한 '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'과 '대한민국 동행세일' 개시

1) 통계청, 연령별 경제활동인구.

2)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공급 이전인 4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중위소득과 가구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 형식으로 공급됨.

〈그림 1〉 한국의 코로나19 주요 타임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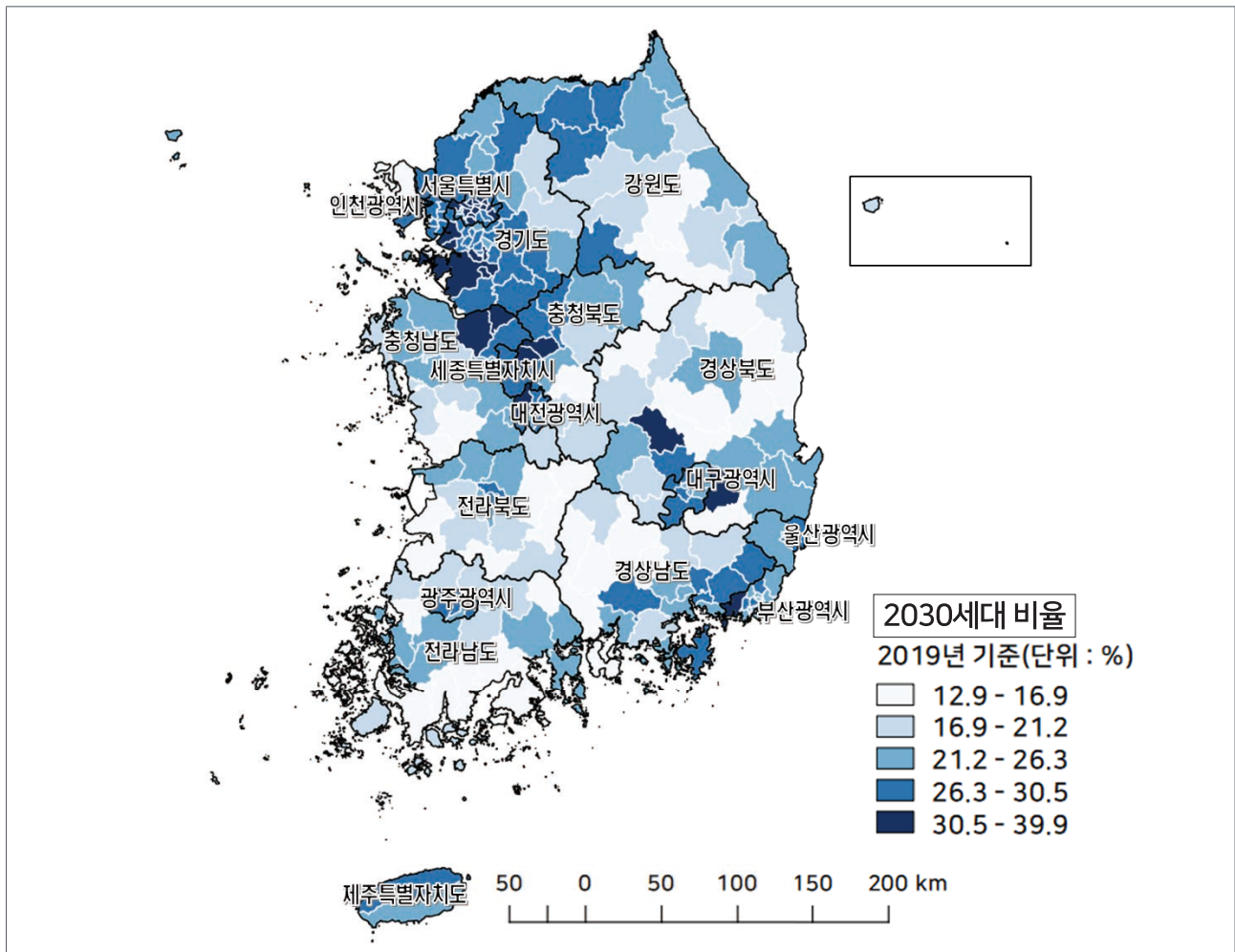


출처: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 등을 취합하여 저자 작성.

한국 '2030세대'의 공간적 분포는 특·광역시로 중심으로 분포

2019년 12월 통계청 기준, 우리나라 '2030세대'는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, 세종과 대전 지역, 대구와 부산 남부지역 등 특·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, 강원지역과 호남지역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

〈그림 2〉 우리나라 '2030세대' 시군구별 비율 분포(2019년 12월 기준)



출처: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.

2

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소득·소비·부채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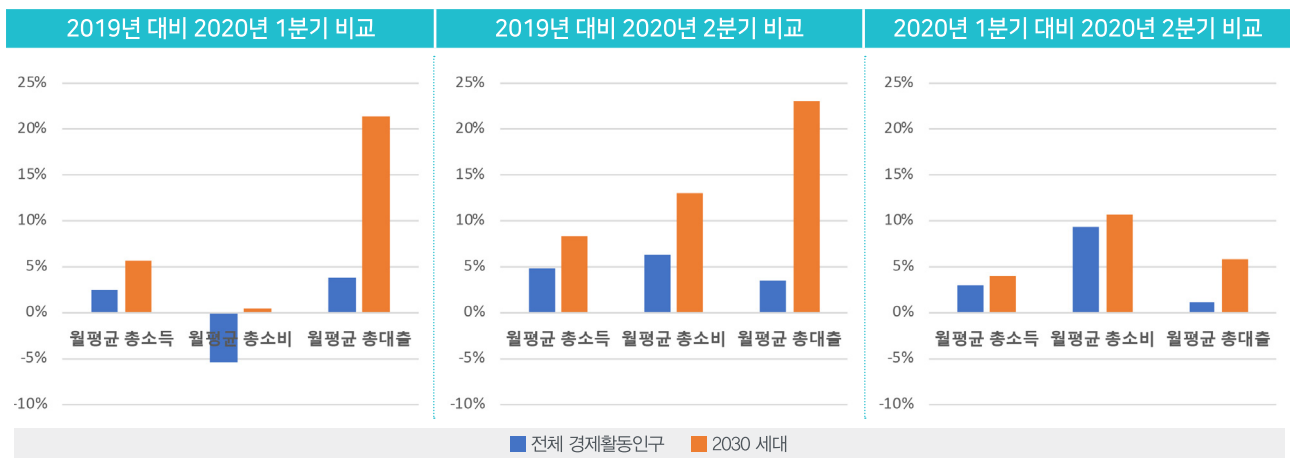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와 소득·소비·부채의 전반적인 변화

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회복 노력과 ‘2030세대’의 소비와 대출 동반 상승

2020년 대학산기(1분기)와 경제회복 촉진기(2분기)의 월평균 총소득, 총소비, 총대출 항목을 2019년 동분기와 비교

-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2030세대의 전반적인 총소비와 총소득, 총대출 변화를 확인
-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대학산기(1분기) 월평균 총소득과 총소비의 변화는 각각 +2.4%, -5.3%로,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추정
 -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경제회복 촉진기(2분기)에는 월평균 총소득 +4.9%, 총소비 +6.3%로 모두 상승했고, 대학산기의 월평균 총대출 증가율(+3.8%)보다 경제회복 촉진기의 월평균 총대출 증가율(+3.5%)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회복 촉진기의 정부 지원금 활성화 영향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
- 2030세대의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대학산기의 월평균 총소득과 총소비는 각각 +5.7%, +0.6%로,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
 -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경제회복 촉진기에는 월평균 총소득과 총소비가 각각 +8.3%, +13.1%의 증가율을 나타내어,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총소득과 총소비 변화율보다도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냈지만, 월평균 총대출은 대학산기 +21.4%에서 경제회복 촉진기 +23.1%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부채 상황은 지속적인 악화를 보임
- 2020년 코로나19 대학산기와 경제회복 촉진기 사이,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+2.9%, 총소비는 +9.3%, 총대출은 +1.2%가량 상승, 2030세대의 월평균 총소득은 +4.0%, 총소비는 +10.6%, 총대출은 +5.9%가 상승하여, 경제활동인구 전반에서 정부 재난지원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짐작되는 반면, 2030세대의 부채둔화에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됨
- ‘아동돌봄쿠폰’과 ‘긴급재난지원금’ 등의 재정지원정책과 ‘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’과 ‘대한민국 동행세일’ 등의 소비 장려 정책이 맞물리면서, 2030세대의 소비의 활성화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두드러진 데 반해, 2030세대의 월평균 총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국의 2030세대의 부채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

〈그림 3〉 ‘전체 경제활동인구’와 ‘2030세대’의 2019년과 2020년의 분기별 월평균 총소득, 총소비, 총대출 비교



주: 2019년 대비 2020년의 총소득 증가율은 한국의 GDP 성장률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될 수 있으며, 본 연구에서는 GDP 성장률과 관련하여 2020년 소득증가율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음.

출처: KCB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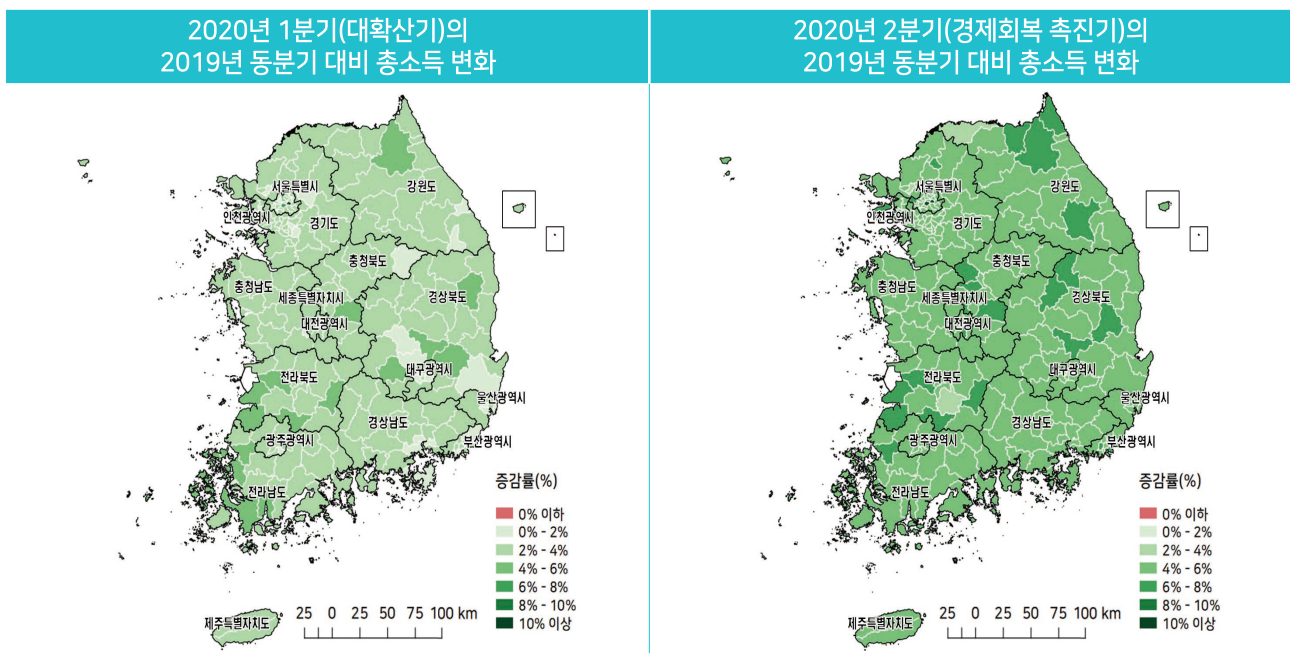
전국 시군구별 월평균 총소득의 변화

2020년 월평균 총소득은 특·광역시보다는 외곽지역이, '전체 경제활동인구'보다는 '2030세대'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변화

④ 대확산기의 시군구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019년 동분기 대비 호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,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조(<그림 4> 참조)

- 대확산기의 월평균 총소득은 코로나19 초기 확산의 주요 지점이었던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, 인천 등을 중심으로 2019년 동분기 대비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고, 경제회복 촉진기에는 인접 시군구와 함께 회복
- 대확산기와 경제회복 촉진기 모두 2019년 동분기 대비 특·광역시를 제외한 외곽 시군구 지역에서 상대적인 증가가 확인되었고, 6% 이상의 증가지역은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

〈그림 4〉 '전체 경제활동인구'의 전국 시군구별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월평균 총소득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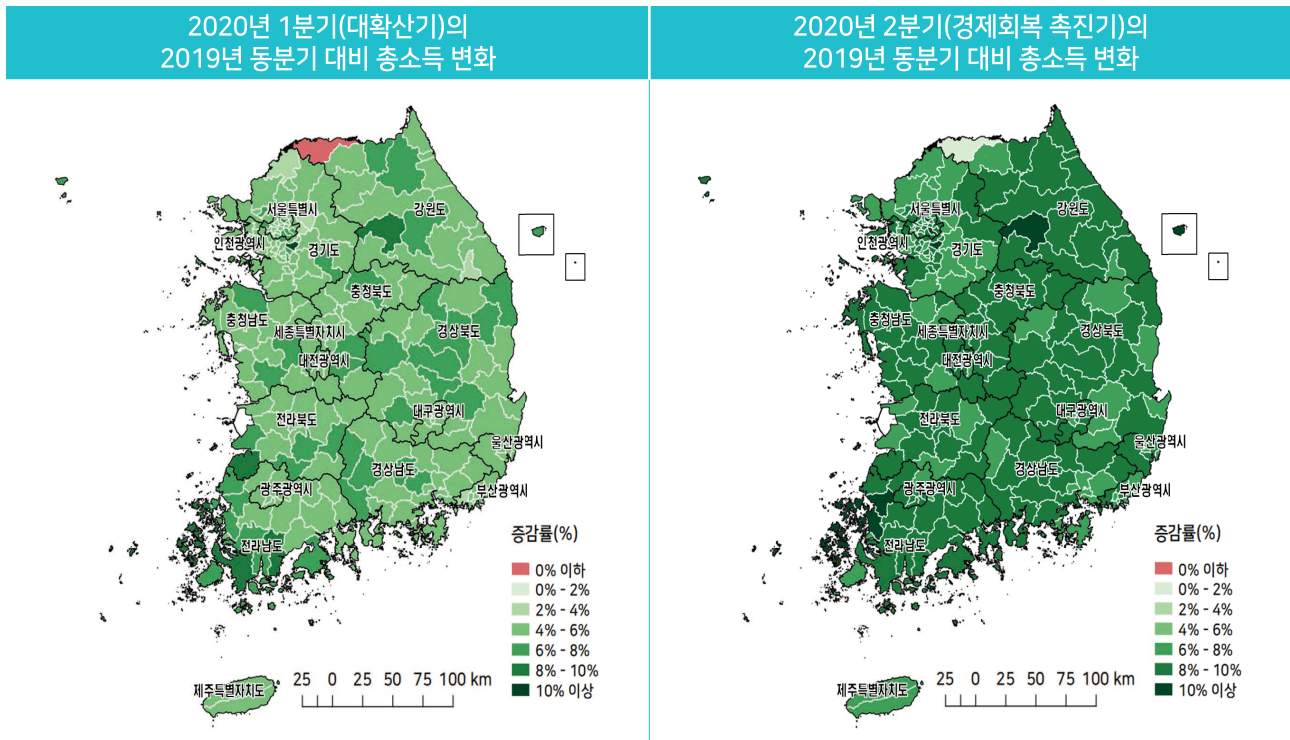
출처: KCB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.

④ 2019년 동분기 대비 2030세대의 대확산기 시군구별 월평균 총소득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유사하지만, 전반적으로 그 증가율이 높고, 호남지역과 강원도 횡성군,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은 8%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냄(<그림 5> 참조)

- 2019년 1분기 대비 대확산기의 월평균 총소득은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, 두드러진 소득 증가가 이루어진 대부분 지역이 2030세대의 비율이 낮아(<그림 2> 참조), 절대적인 소득의 증가가 이뤄졌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약함
- 경제회복 촉진기에는 2019년 동분기 대비 전반적인 월평균 총소득 증가가 이뤄졌고, 그 증가율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회복 촉진기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
- 전라남도 무안군과 목포시, 강원도 횡성군 지역에서 총소득 변화가 10% 이상 증가한 이유로는 정부재난지원금의 공급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물(홍어와 한우 등) 수요변화, 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입 수산물과 육류의 반입이 줄면서 상승한 지역 특산품의 단위당 가격 변화 등이 주요인으로 추정됨³⁾

3) 한겨레신문. 2020. 재난지원금 효과에 오른 소고기값, 언제 내려갈까. 5월 28일; 동아신문. 2020. 재난지원금 효과... 한우 등심 1kg에 10만 원. 6월 5일; 황익식 외. 2020. 코로나19 대응 농업·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. 나주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144~190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.

〈그림 5〉 ‘2030세대’의 전국 시군구별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월평균 총소득 변화



출처: KCB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.

전국 시군구별 월평균 총소비의 변화

코로나19 초기 대유행지역 중심의 소비위축 후,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소비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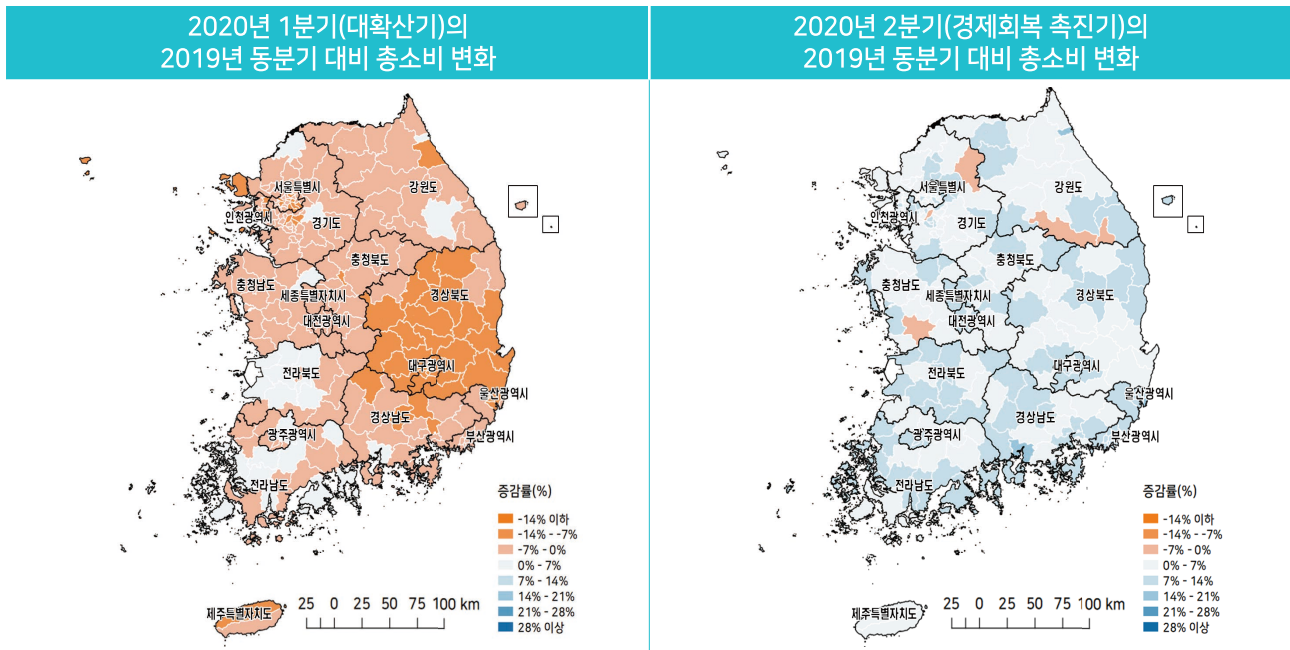
📍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19년 동기간 대비 대확산기(신용+현금) 카드의 월평균 총소비액은, 초기 코로나19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-14~-7%로 위축되었고, 대구와 경북지역의 감소가 다소 두드러짐(〈그림 6〉 참조)

- 대확산기의 2019년 동기간 대비 감소 추이는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- 인천과 서울, 경상남도 일부 등도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고, 코로나19로 인한 국내·외 관광객 급감으로 영향받은 제주 지역의 감소 또한 두드러짐
- 경제회복 촉진기에는 2019년 동분기 대비 전국의 신용 및 현금 카드 소비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
- 경기도 가평군, 충청남도 부여군,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시 등은 경제회복 촉진기에도 소비회복이 저조

📍 2030세대의 2019년 동기간 대비 대확산기(1분기) 카드의 월평균 총소비액을 통해 코로나19 초기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소비위축이 경제회복 촉진기(2분기)에 상당 부분 회복(〈그림 7〉 참조)됨을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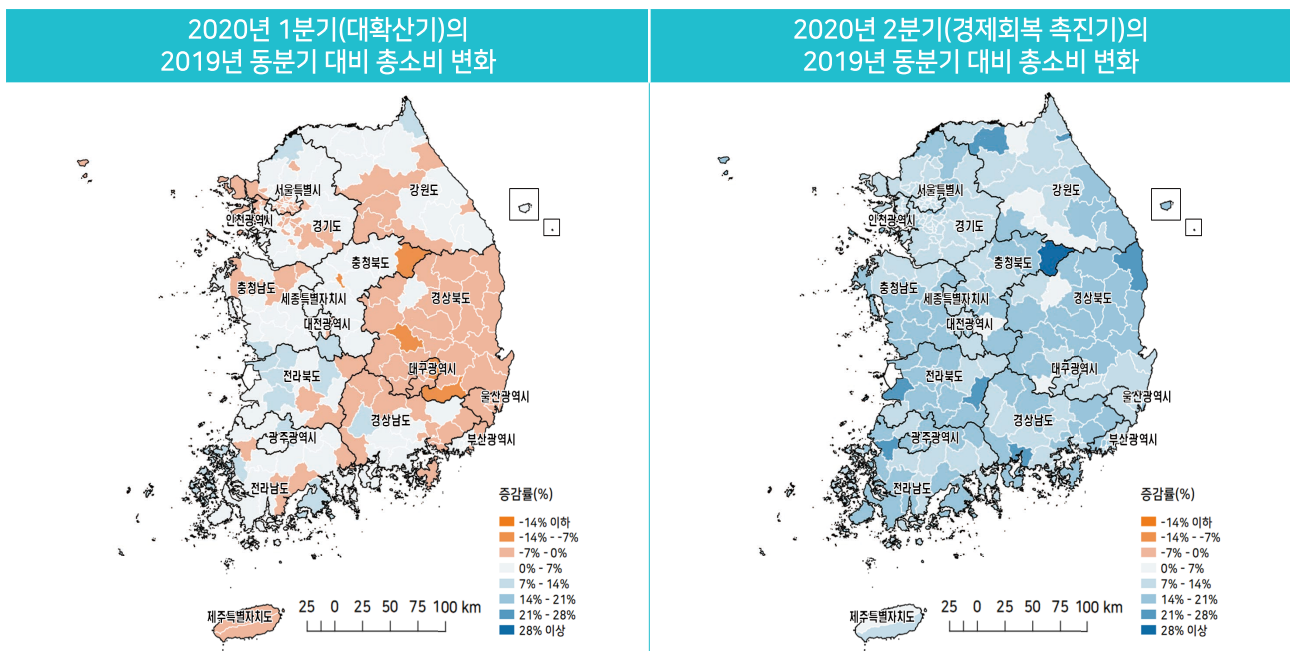
- 대확산기에는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이 저조했던 호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높았고, 전국에 걸쳐 소비위축의 정도가 두드러지지 않아 2030세대의 소비활동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적극적임을 확인
- 경제회복 촉진기에는 2019년 동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소비회복률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남
- 대확산기에 월평균 총소비가 가장 위축됐던 지역 중 하나인 충청북도 단양군이 경제회복 촉진기에는 2019년 동분기 대비 28% 이상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, 해당 지역의 2030세대의 비율이 대략 12.9~16.9%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〈그림 6〉 ‘전체 경제활동인구’의 전국 시군구별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월평균 총소비 변화



출처: KCB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.

〈그림 7〉 ‘2030세대’의 전국 시군구별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월평균 총소비 변화



출처: KCB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.

코로나19로 해외 방문객의 소비행태도 -23.5 ~ -65.5%가량 급감

📍 해외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해외 입국자들의 신용카드 소비는 2019년 동분기 대비 대확산기는 -49.6 ~ -23.5% 감소하였고, 경제회복 촉진기에는 2019년 동분기 대비 -65.5 ~ -39.8%가량 급감

- 외국인의 신분 특성상 정부재난지원금의 혜택과 무관하여, 2019년 동분기 대비 경제회복 촉진기의 신용카드 급감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- 주요 감소지역으로는 해외 입국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공항 및 항구 등을 중심으로 인천·서울·충북(청주공항), 부산·광주(무안공항), 제주 등과 그 주변이 두드러짐

전국 시군구별 월평균 총신용대출의 변화

코로나19 초기 대유행지역의 2030세대, 높은 월평균 총신용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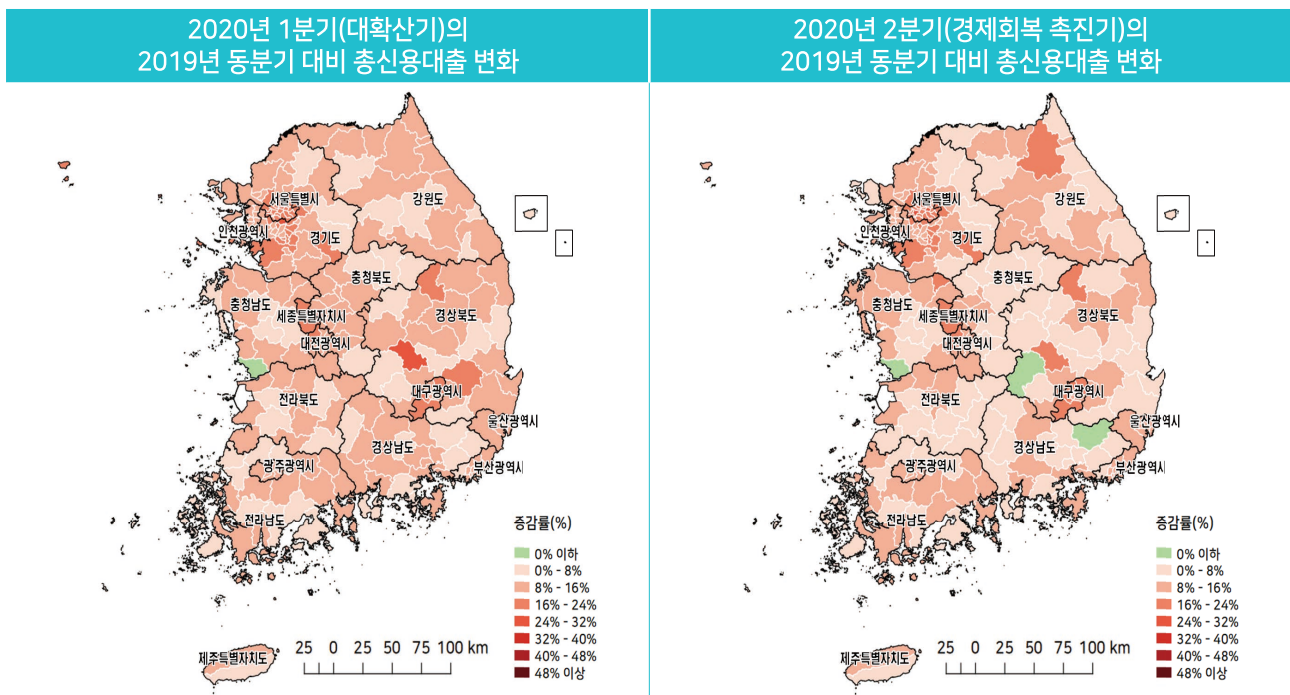
- 📍 한국가계신용데이터에서 취합하는 부채 정보는 월평균 총부채, 월평균 총신용대출, 월평균 총주택담보대출 등의 항목으로 구성

 - 신용대출 항목은 총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항목보다 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대출금액 또한 개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현상 변화에 따른 경기 파악에 효과적
 - 정부에 의해 2020년 3월 중순에 한차례 지급된 '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' 등의 영향이 소급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,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이후인 9월에 지급된 2차 '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'의 영향 파악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📍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19년 동기간 대비 대확산기(1분기) 월평균 총신용대출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대구시, 세종시와 대전시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증가, 경제회복 촉진기(2분기)에는 다소 감소(<그림 8> 참조)

 - 2019년 동분기와 대비하여 대확산기보다 경제회복 촉진기에 소극 완화되었고, 충북과 전북,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월평균 총신용대출이 주로 감소
 - 2019년 동분기 대비 경제회복 촉진기에 강원도 인제군이 상대적으로 소극 상승하였고, 서울과 세종, 대전, 대구 등은 대확산기와 유사한 비율을 유지
- 📍 2030세대의 2019년 동분기 대비 대확산기 월평균 총신용대출은 +20%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, 경제회복 촉진기에도 증가 추이가 지속해서 나타남(<그림 9>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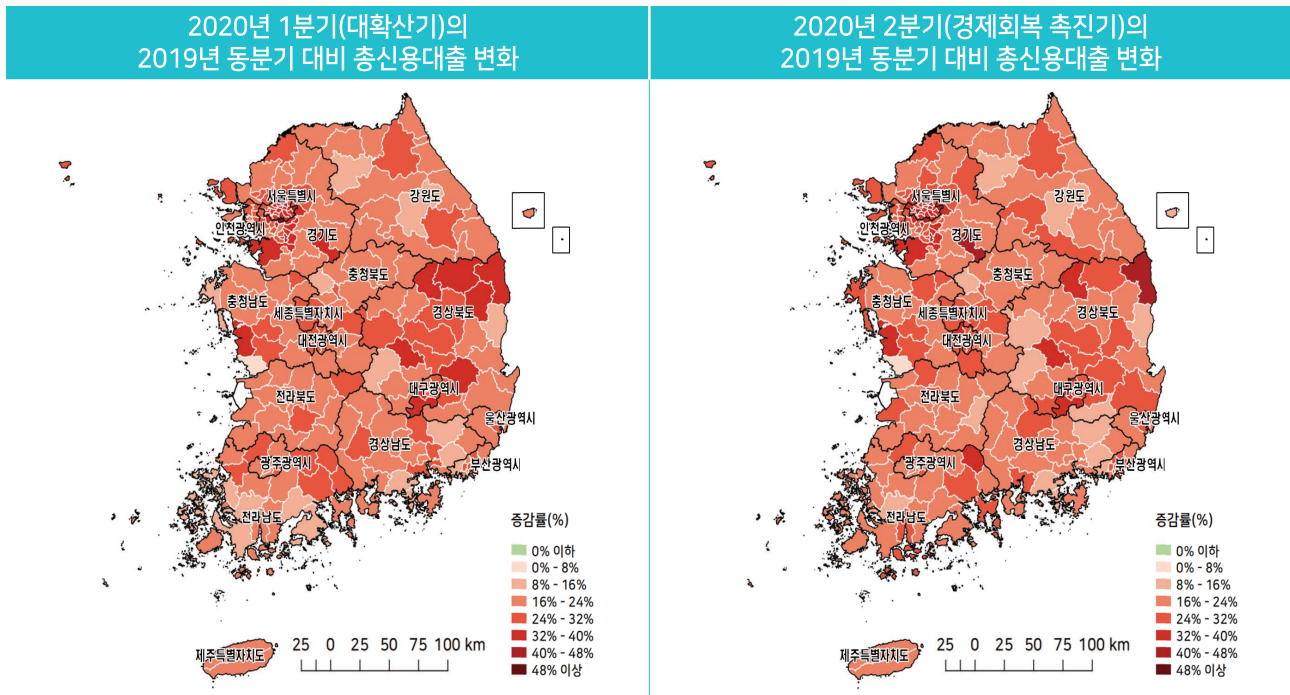
 - 2019년 1분기 대비 대확산기에는 수도권的大部分 지역,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+30% 이상의 신용대출 증가율을 나타내는데, 동시기에 대구와 경북지역은 월평균 총소비 또한 급감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30세대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
 - 2019년 2분기 대비 경제회복 촉진기에도 총신용대출의 비율은 크게 회복되지 못했는데, 경상북도 울진군은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+40% 이상의 높은 신용대출 비율을 나타냄

<그림 8> '전체 경제활동인구'의 전국 시군구별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월평균 총신용대출 변화



출처: KCB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.

〈그림 9〉 ‘2030세대’의 전국 시군구별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월평균 총신용대출 변화



출처: KCB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.

2030세대의 월평균 총대출 및 총주택담보대출 급증

📍 2030세대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부채비율 격차는 월평균 총대출 변화와 주택담보대출 변화 비교에서도 두드러짐(<부록 2·3> 참조)

- 2019년 동분기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모두,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월평균 총대출 -2.2~6.3% 범위의 증감률이, 월평균 총주택담보대출 -11.0~1.9% 범위의 증감률이 확인됨
- 2030세대에서는 월평균 총대출 9.1~31.6%, 월평균 총주택담보대출 -0.1~26.9% 범위의 증감률이 확인됨
- 2030세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영향이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며,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 등의 영향도 부채상승의 원인에 주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

📍 수도권과 대전지역이 총대출의 주요 증가지역으로 확인됨

- 월평균 총대출의 주요 증가지역으로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기준 서울과 대전, 전남지역으로 확인되었고, 2030 세대에서는 수도권과 대전 등의 지역이 확인됨
-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서울, 인천, 대전, 전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9년 동분기 대비 경제회복 촉진기에 총대출 완화 추이가 나타났으나, 2030세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채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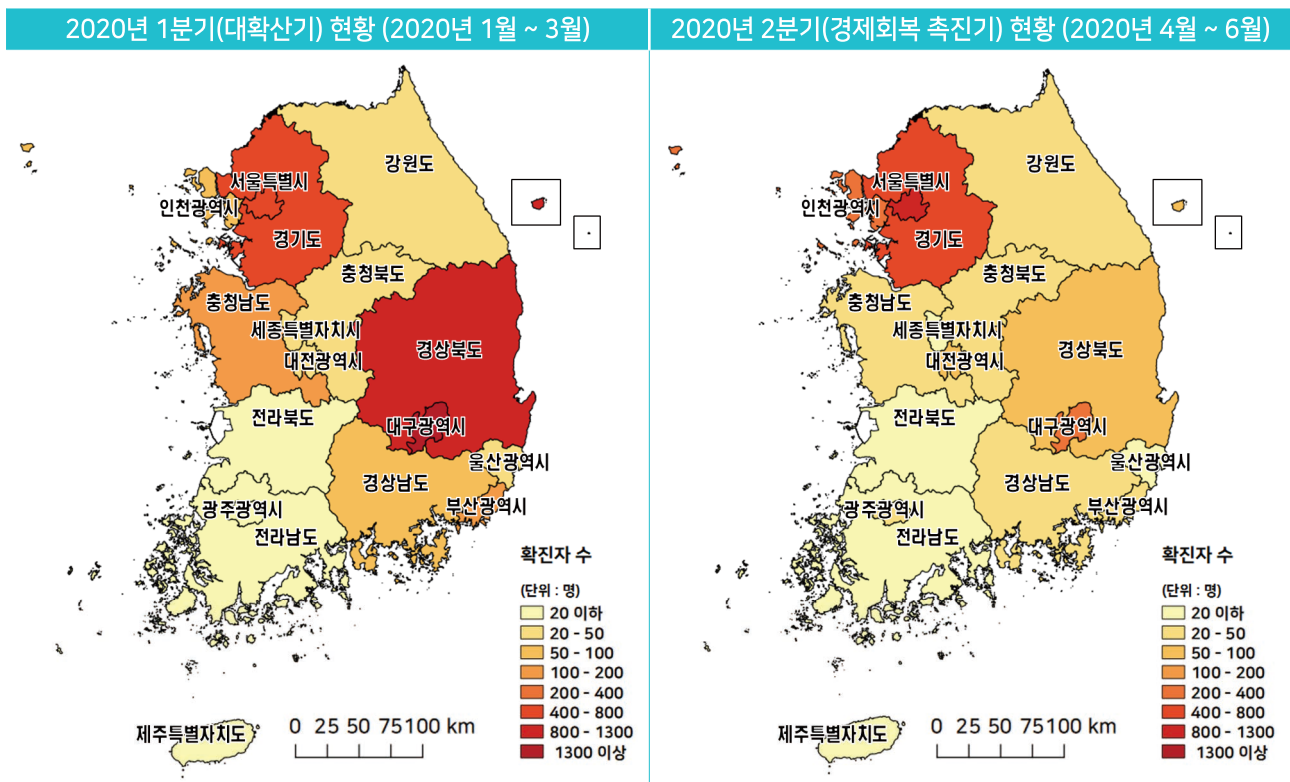
결론 및 시사점

📍 정부의 경제적 지원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소득과 소비는 일시적으로 회복됐지만, 2030세대의 부채문제 해결에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

- 코로나19의 장기화와 2030세대의 고용회복 지연,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적 기반형성에 어려움을 줄 것이므로 산업구조 재편 등의 방안을 통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
- ‘아동돌봄쿠폰’과 ‘긴급재난지원금’ 등의 재정지원정책으로 인한 소득회복에 반해, 2030세대의 총대출은 오히려 상승하여 지원의 효과와 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
- ② 초기 코로나19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위축된 소비와 소득의 여파가 신용대출의 증가로 이어졌고, 이러한 부담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
 -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이후 소비와 소득의 회복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여, 재난지원금의 지역별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지역경제의 회복에 대한 장기적 정책 수립 필요
 - 코로나19 초기 확산지역 중 하나인 경상북도와 대구 일대의 위축된 소비는 경제회복 촉진기 이후에도 그 현상이 지속되었고, 해당 지역의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고(高)신용대출 비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반증
- ③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역경제 모니터링체계 구축 필요
 - 경제회복 촉진정책 등을 통해 시군구 전반에서 2030세대의 소득과 소비가 회복됐지만 2030세대의 지역별 분포가 상이하여, 해당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소비의 회복과 직결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
 - 육류와 해산물 등의 농업과 어업 중심 지역에서 확인된 소득의 회복이 긴급재난지원금 공급으로 인한 소비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현상인지, 코로나19로 인한 감소 등 공급 감소에 의한 현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 - 해외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관광 중심 도시들의 해외 입국자들의 신용카드 소비는 지역의 상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, 지역에 맞는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

[부록] 2020년 분기별 코로나19 현황과 광역시도별 대출 항목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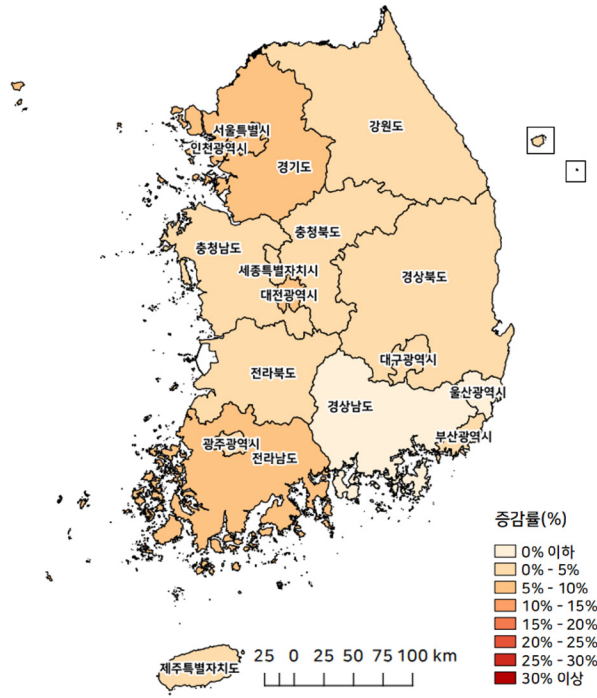
〈부록 1〉 대확산기(2020년 1분기)와 경제회복 촉진기(2020년 2분기)의 전국 누적 확진자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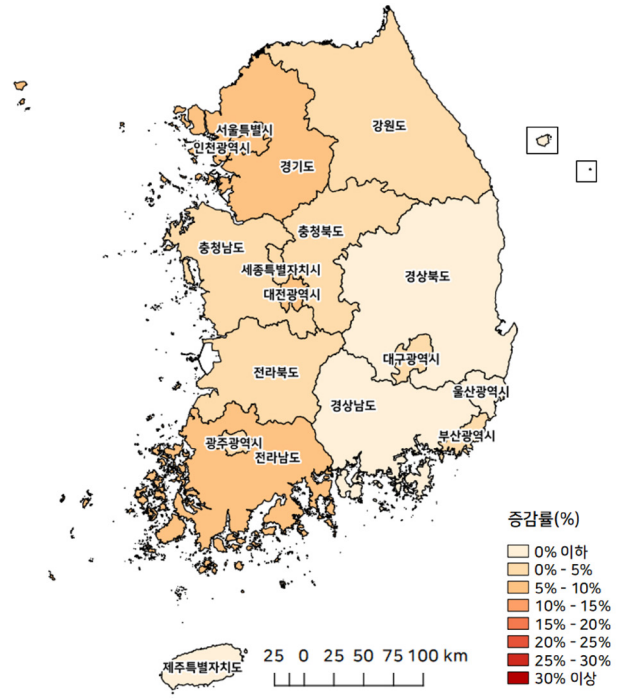
출처: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 등을 취합하여 저자 작성.

〈부록 2〉 ‘전체 경제활동인구’의 전국 광역시도별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총대출 및 총주택담보대출 변화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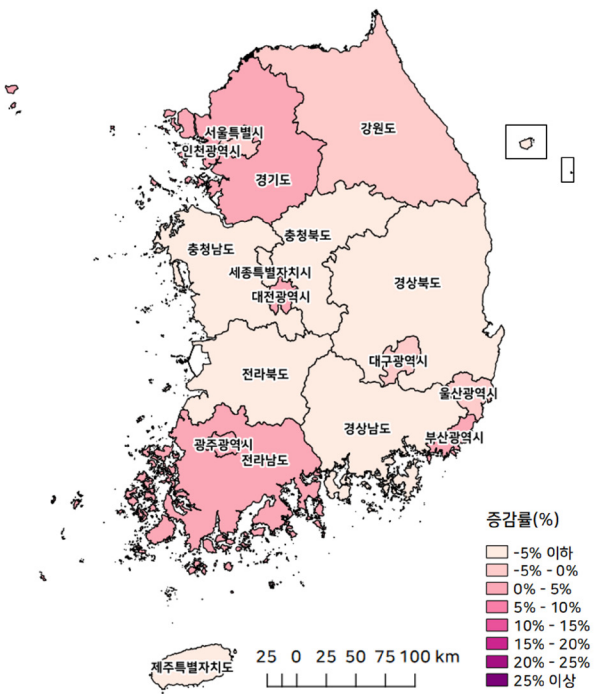
2020년 1분기(대학산기)의 2019년 동분기 대비 총대출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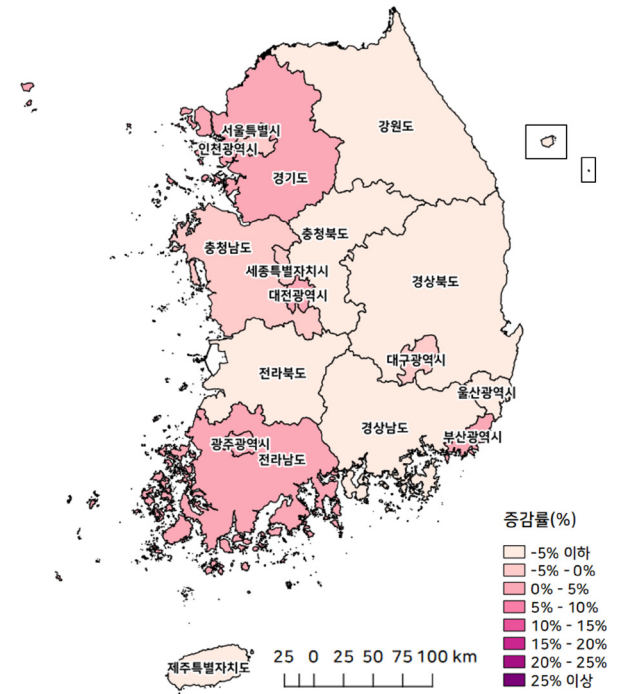
2020년 2분기(경제회복 촉진기)의 2019년 동분기 대비 총대출 변화



2020년 1분기(대학산기)의
2019년 동분기 대비 총주택담보대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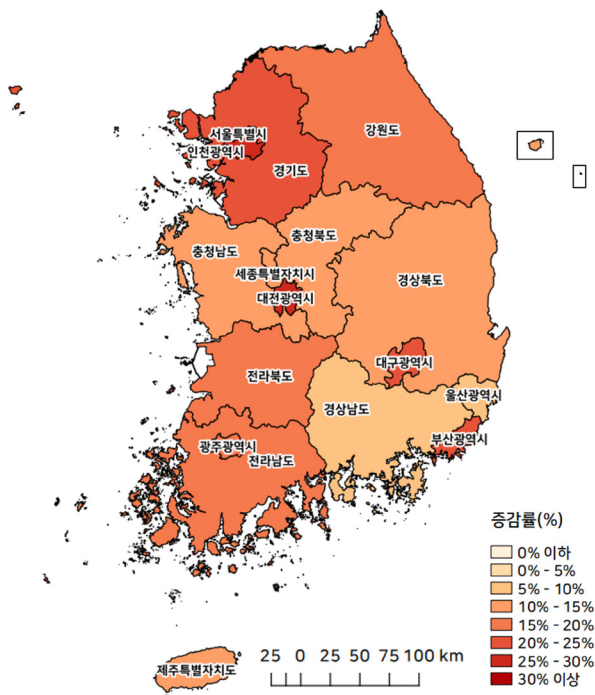


2020년 2분기(경제회복 촉진기)
2019년 동분기 대비 총주택담보대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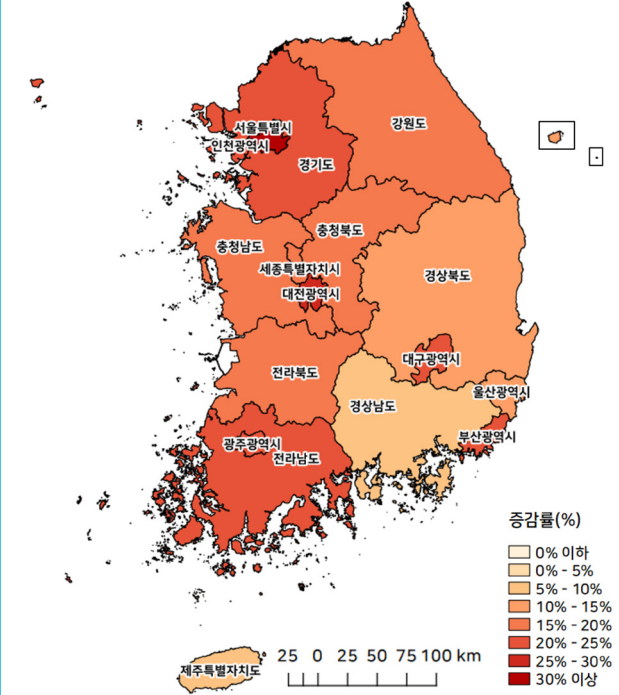


〈부록 3〉 ‘2030세대’의 전국 광역시도별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와 2분기 총대출 및 총주택담보대출 변화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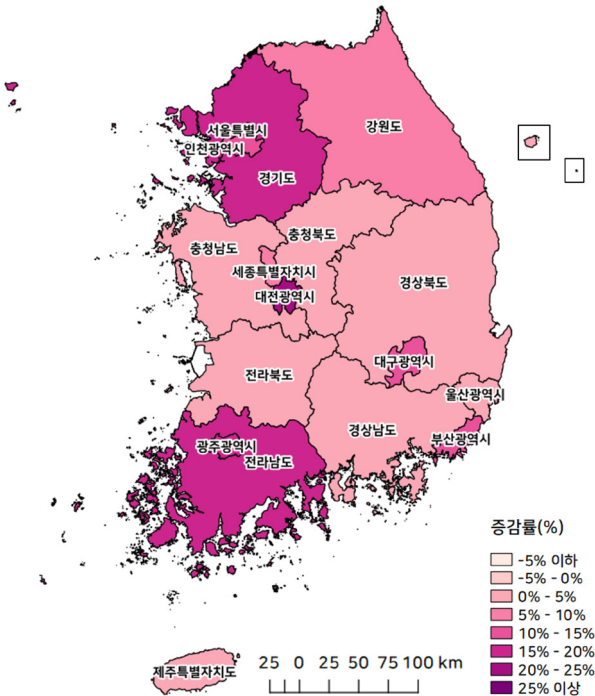
2020년 1분기(대확산기)의 2019년 동분기 대비 총대출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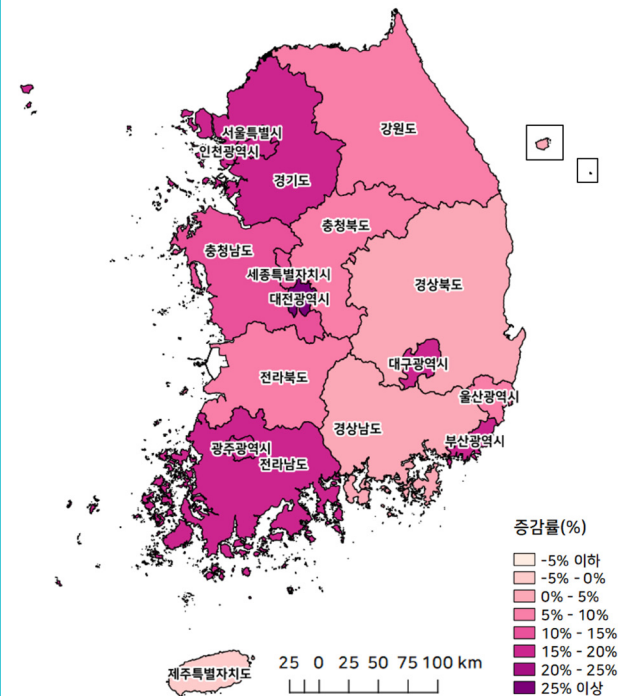
2020년 2분기(경제회복 촉진기)의 2019년 동분기 대비 총대출 변화



2020년 1분기(대확산기)의
2019년 동분기 대비 총주택담보대출 변화



2020년 2분기(경제회복 촉진기)의
2019년 동분기 대비 총주택담보대출 변화



허다혜 국토데이터랩 인턴 (hdh5533@naver.com)
 배서광 국토데이터랩 인턴 (ggumdong@naver.com)
 장요한 국토데이터랩 팀장 (ycanns@krihs.re.kr, 044-960-0406)
 박서현 국토데이터랩 연구원 (parksh@krihs.re.kr, 044-960-0316)